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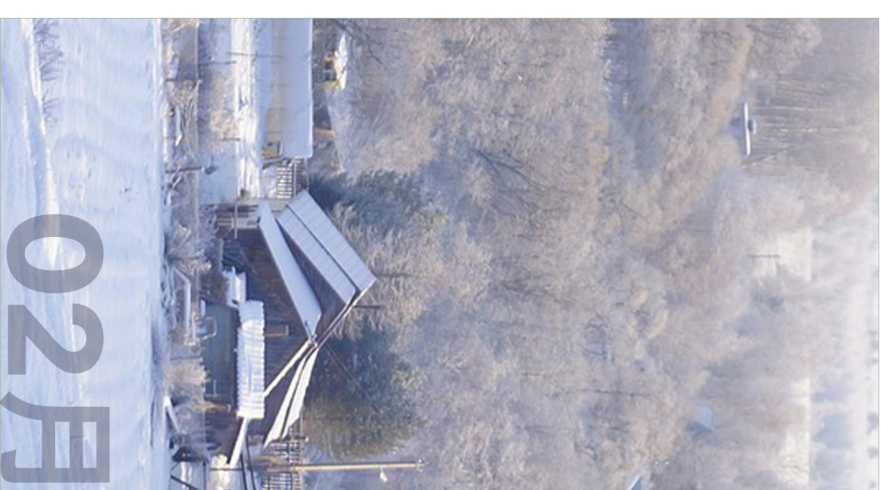


COACHING

STORY



01月



02月

# COACHING NEWS LETTER

2023 / 1,2

# CONTENTS

04

##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착실한 코치가 착실한 피코치를 세운다\_석정문

06

## 2022년 코칭 10대 뉴스

**GO THRIVE COACHING** Renewing Pastor Reviving Church

은 교회의 건강을 진단, 평가,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세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역은 미국에서 1997년도에 시작하여 20년간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다섯 권의 관련 서적을 발행하였고, 1,000교회, 2,000명의 목회자, 그리고 1,500명의 평신도를 진단, 평가, 처방해왔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자 갱신(renewing), 교회 부흥(reviving), 지역사회 변화(refreshing)를 5대(5 generation)에 걸쳐서 실현하는 “3R5G시대 : 2030에 3,100명의 코치 세우기”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역은 미국, 캐나다, 한국, C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에서 목회 코칭, 교회리더 평신도 코칭, 건강진단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2

## 북리포트

코액티브 코칭\_정헌철목사

14

## 특집0 - 코칭컨퍼런스 기사

'서로의 모습을 보며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 용인팀

16

## 특집1 - "코칭으로 암을 이겨냈어요"

-3세대 피코치 최필자 권사

20

## 특집2 - 코칭으로 꽃 피우는 사람들

"Thank you, Coaching"\_미니인터뷰

26

## 셀프코칭 평가지

-GMS팀

30

## 서울/경기 코칭세미나 설명회

##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 GO Coaching Column

## - 착실한 코치가 착실한 피코치를 세운다 -



경영학자들은 회사의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그 회사의 리더인 CEO의 가치를 99로 봅니다. 이 말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리더십과 동기 부여"라는 책(시요우먼외 2인 편저, 시그마블, 2011년)을 읽으면서 착실한 코치가 착실한 피코치를 세운다는 명제가 생각났습니다.

착실한 코치는 어떤 분이십니까?

### 착실한 코치는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착실한 코치는 사람중심이라는 말은 피코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일 중심(Job centered)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치가 피코치를 코칭을 할 때에 **사람에 초점을 두어야지 일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코칭은 사람을 코칭하지 일을 코칭하지 않습니다. 피코치가 세운 목표가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 코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목표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였다면 성취되지 못한 목표에 신경을 쓰기보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만일 게으름(idleness)의 이슈라면 이겨내도록 돕고, 우선권(priority)의 이슈라면 극복하도록 돕는 일이 코치의 사명입니다.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에 나무라거나, 창피를 준다거나 혹은 다그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과를 못 내었다면 야단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스스로 교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일 피코치가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목표에 우선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피코치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코치님께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일에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니 다음 달에 목표에 집중한다면 능히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라고 피드백을 합니다.



## 착실한 코치는 자아실현에 관심

코치는 피코치의 자아실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란 피코치의 삶이 창의적(creative)이며, 자율적(self-control)이며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joy and pleasure)을 창출하도록 코칭을 하라는 말입니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피코치 속에 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maximize potential gift)을 끌어내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코치 속에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코치가 피코치를 향해 경청과 질문, 그리고 피드백(칭찬과 인정과 격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피코치가 독립심을 가지고 코치의 지시나 명령 혹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피코치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발견이 되도록 코칭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창출은 피코치가 목표에만 얽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이나 발전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코칭을 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코치로서 피코치를 대할 때 피코치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길러주어 스스로 이슈를 풀어가도록 도와 삶과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돕는 코치입니까?

## 착실한 코치는 통일된 유기체 형성

코치는 피코치가 통일된 유기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사람의 몸의 조직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끼리 끼리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치는 피코치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울 때에 그 목표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표는 피코치가 가진 **사명(mission)**/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긴 일), **비전(vision)**/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는 눈/매력적이며 도전적이며 실현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 그림), 그리고 **핵심가치(core value)**/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나 신념)와 동떨어지지 않게 작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표는 사명과 연결되고, 비전이 목표와 연결이 되고, 핵심가치도 목표와 연결이 되도록 돕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각 기관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은 목줄과 연결되어 있고, 위장은 동시에 소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소장은 대장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소화 시스템을 만들 듯이 피코치가 세우는 목표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목표는 효율적이며, 능률적이며 그리고 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코치로서 피코치를 도울 때에 목표와 실행전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핵심가치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드림으로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 2022년 GO코칭연구소

## 10대 NEWS

### 1. 동남아시아 지역 여성 선교사 코치 양성

지난해 3월 4일동안 동남아시아 지역 여성 선교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를 수료했습니다. 참석한 팀원들은 (1)태국에 김보순 선교사, 윤선헌선교사, 오영철 선교사(3명), (2)캄보디아에 이숙영 선교사(1명), (3) 오스트리아에 장웅현 선교사와 권복이 선교사(2명)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 선교사 코치로 세워진 분들 중 주니어코치(Junior coach)로 세워진 분들은 김보순(태국), 추승주(태국)이고, 로컬 코치(Local coach)로 세워진 분들은 이숙영 선교사(캄보디아)와 박선기 선교사(미국), 윤선헌 선교사(태국)입니다.

\*참고: (1) 로컬 코치(Local coach)의 자격은 코칭 세미나(2과정)에 참석하고 목실기를 작성하여 1년간 일대일 코칭을 받아 성과를 창출한 분이며, (2) 주니어 코치(Junior coach)는 로컬 코치가 되어 2 사람의 피코치를 선정하여 목실기를 작성하여 1년간 일대일 코칭을 하여 성과를 창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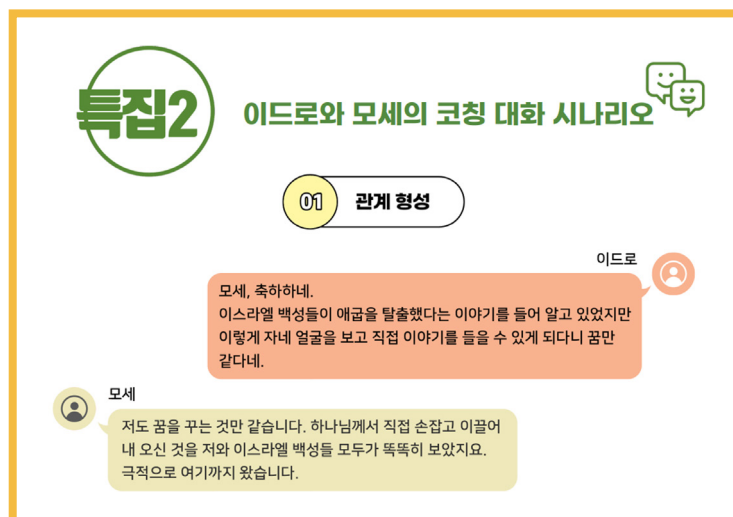
## 2. 일대일코칭 후 건강진단 평가 257% 상승

**코**칭세미나 이후 일대일코칭이 이어지면 일대일코칭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건강진단 평가가 257% 상승한다는 사실이 건강진단 평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코칭 세미나 시작 전에 목회자/선교사/사모들은 '다윗의 4C 모델 신앙'으로 제1차 건강을 진단하며 자신의 이슈를 발견하고 스스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웁니다. 이후 제2차 건강을 진단 해보니 평균 4.56 포인트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간 일대일 코칭을 받은 사람들(12명의 목회자/선교사/사모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건강 진단을 한 결과 평균 +11.74 포인트의 상승이 있었으며, 이를 제1차와 제2차를 비교해 보면 제2차에서 25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는 코칭의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결과로서, 많은 분들이 일대일코칭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 3. 이드로와 모세의 코칭대화 시나리오 작성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세미나’의 내용 중 이드로와 모세 사이의 대화가 시나리오로 나와 지난 3-4월호 코칭레터에 실렸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일대일 코칭 대화 시나리오 오는 2022년 3월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세미나에 참석한 박선기 사모가 과제물로 만든 작품입니다. 박선기 사모는 선교사들을 위한 로뎀선교사케어(Rodem Missionary Care) 사역을 하고 있으며,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간단한 내용을 긴 시나리오로 만들어 상황을 세세히 알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해 주셔서 앞으로의 코칭세미나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목회자 코칭 그룹 : 경포대팀, 신태인팀 그리고 새인천팀 구성

지난해에는 대구, 전북 신태인, 인천 지역에서 코칭세미나가 개최되어 목회자 21명이 코칭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세미나 후에는 경산, 포항, 대구에서 모인 목회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경포대' 팀, 전북 신태인 지역 목회자들은 '신태인' 팀, 인천지역 목회자들은 새인천교회에서 모여 '새인천팀' 이 꾸려졌습니다.



#### 5. 이성권 목사의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과 소천

한국 GO코칭의 대표 이성권 목사님이 오랜 투병 끝에 지난해 12월 13일에 소천했습니다. 한국 GO코칭연구소에서는 이성권 목사님을 격려하며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국과 열방에서 후원 모금 활동을 했으며 국내외에서 21명이 후원 모금에 동참해 4,800달러를 미국남침례회 한인 총회장 김경도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성권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6. GO코칭이사진 모임, 코칭의 리더십과 미래 논의

지난 6월27-28일(월-화) 양일간 부산침례교회(김종성 목사)에서 코칭 1기 목회자와 4기 목회자들이 만나 GO코칭연구소 리더십의 미래와 코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석정문 대표와 이희금 사모, 1기 목회자인 한국 GO코칭 이사장 김종식 목사(포항중앙침례교회), 대표 권종오 목사(부산안락제일교회), 총무인 김종성 목사(부산침례교회)와 4기 서울과 경기 중심의 정현철 목사(서울동대문구동일침례교회), 심용훈 목사(서울강동구늘푸른교회), 윤광열 목사(경기 용인 요셉국제학교), 박준영 목사(부산부산진동성교회), 코디 이동희 사모가 참석했습니다.





<부산침례교회 제1,4기생 GO 코칭 모임>

## 7. 지역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3세대 코칭 - 동일교회, 동성교회 늘푸른교회

**동**일교회, 동성교회, 늘푸른교회가 교회에서 코칭 사역을 진행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3세대 코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교회는 권사 그룹에서 코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교회 리더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늘푸른교회 역시 코칭이 3세대까지 이어지면서 교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동성교회는 장년부터 중고등부까지 코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제1세대, 2세대 및 3세대가 함께하는 코칭, 동일교회>

## 8. 태국에서 이어지는 3세대 코칭

**태**국 지역에서 코칭세미나 이후 선교 사역에서 코칭이 자리잡히고 있습니다. 추승주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를 1년간 코칭했습니다. 김보순 선교사는 태국에서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 여성 지도자들을 코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9. 코칭세미나 수료자 중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지**난 9월22(목) 서울 분당 지구촌 교회(최성은 목사) 그레이스 홀에서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진행 되었습니다. 코칭 교육을 받은 분들 5명이 이날 학위를 받았습니다. 목회학 박사로는 박정일 목사, 유현성 목사, 정현철 목사, 정희찬 선교사가, 교육학 박사로는 윤광열 목사가 받았습니다.

**한**편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는 GO코칭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변과 세변 코칭세미나를 받고, 1년간 12차례에 걸쳐 일대일모칭 및 소정의 코칭 관련 서적을 읽고 북 리포트를 제출하면 목회학 박사과 교육학 박사 과정에서 8학점(2과목)을 인정해 주며, 동시에 \$2,000의 장학금도 제공해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미드웨스턴 한국 졸업식>

## 10.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통해 현지인 코치 탄생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추승주 선교사는 현지인 모라 전도사와 이부 사모 부부를 1년간 코칭해 첫 현지인 코치를 길러냈습니다. GO코칭연구소에서는 이들을 격려하며 5만원의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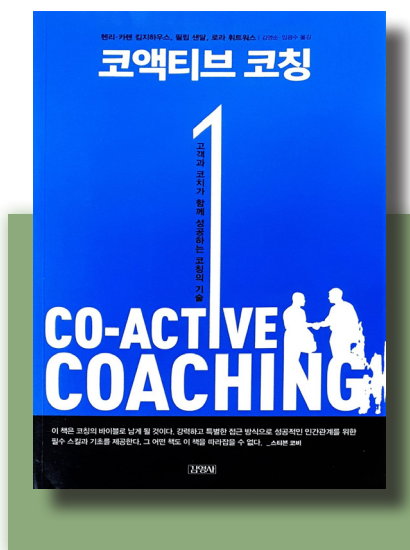
### \* 2023년을 맞이하며 GO코치가 기대하는 10가지 중요한 이벤트(예정) \*

1. 6월28일(화) 제2,3,4세대 코칭을 하는 목회자들의 만남과 나눔
2. 10월9일(월) 제2,3,4세대 코칭을 하는 평신도 리더들의 만남과 나눔
3. 4개의 새로운 목회자팀과 선교사팀 30명 등록
4. 4월 3째주에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에서 현지인 자변 코칭 세미나 개최
5. 태국 치앙마이/치앙라이에서 코칭 받은 선교사들과의 하루 만남과 교제
6. 구미 선산교회(김상로 목사)에서 교육부(5개 부서) 조직 코칭과 발전
7. 2월에 가질 부산 동성교회 제3차 교육부 코칭
8. 10월에 가질 서울 동일교회 교육부와 목양부의 조직 코칭
9. 전주 온 고을 교회가 전북지역의 모델 교회 세우기
10. 대전 코칭 선교 센터 리모델링

## '고객과 코치가 함께 성공하는 코칭의 기술'

# 『코액티브 코칭』

| 글쓴이 : 정현철 목사



저자 헨리 김지하우스, 카렌 김지하우스 외 2명  
김영사 출판 | 2016 | 페이지수 308

이 책에 대해 스티븐 코비는 ‘코칭 바이블로 남을 책’이라고 평했다. 강력하고 특별한 접근 방식으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스킬과 기초를 제공하기에 그 어떤 책도 이 책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서평한 점이 인상 깊었다. 역자들 또한 이 책을 ‘한국에 반드시 있어야 될 책’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번역하였을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이었음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 [코액티브 코칭에서의 코치의 역할]

저자는 코칭 모델을 설명하면서 코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코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 채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일종의 ‘변화 촉진자(Change agent)’라고 정의한다. 또한 코

치는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촉매제(Catalyst)’ 역할을 한다고 코치의 포지션을 지정하고 있다(45p). 그래서 코칭이 고객의 높은 수준의 고결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기여하는 그곳에 코치가 고객과 함께 있음이 기쁜 일임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고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코치가 코칭에 빠져드는 이유임을 제시한다(46p).

코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피코치들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놀라며,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그 잠재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발휘하면서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올해 우리 교회 코칭 3세대인 최OO(68세) 피코치를 볼 때면 실로 감동이고 감격이다. 향암을 받으면서도 코칭 목표를 향해 실천전략을 꾸준히 실행에 옮겨 목표치를 상향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다른 모든 코치와 피코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최 피코치 곁에서 변화를 위해 꾸준히 돕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박OO 코치가 코치의 역할을 100% 발휘한 열매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다.

### [코칭의 핵심, 경청]

저자는 ‘경청을 보든 코칭이 통과하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강조한다. 코칭에서의 모든 것은 경청, 특히 고객의 계획과 목적을 명심하면서 듣는 경청에 달려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고객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잘 살고 있는가? 그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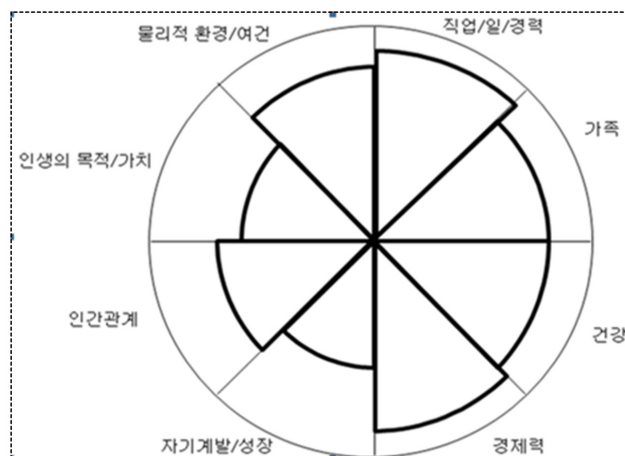
코치는 고객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호, 즉 고객이 내리는 결정, 그러한 결정이 고객을 삶의 균형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저자는 경청이 모든 코칭의 관문이기에 모든 코칭 구성 요소는 어떤 의미로는 **1단계 경청(자기 중심적 경청)**, **2단계 경청(고객 중심의 경청)** 그리고 **3단계 경청(총체적 경청)**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83p).

코치라고 무조건 피코치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혹은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님을 코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피코치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가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경청하면서 코칭의 초점과 방향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변경을 위해 어떤 코칭 스킬을 사용해야 할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순발력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코치가 이야기하는 것을 코치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깨닫게 되었다.

## 코칭스킬 - 핵심 요약하기

저자는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길게 하여 코칭 세션을 무참하게 압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겁 잡을 수 없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대화가 엇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코칭 스킬로 핵심 요약하기를 소개하고 있다. '핵심 요약하기(Bottom-lining)'를 대화를 핵심 포인트에 도달하게 하는 스킬이며, 고객으로 하여금 또한 핵심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스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객과의 초기 세션에서 이 스킬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고객에게 핵심을 말해달라고 요청할 때 고객이 놀라지 않도록 하라고 권한다. 반대로 코치에게도 주의를 주면서 핵심 요약하기는 코치에게도 중요한 스킬인데, 코치로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즉 코치도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193p).

말을 많이 해야만 좋은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님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꼭 필요한 말, 혹은 지침을 주어 피코치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를 수정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고수, 즉 탑 코치임을 기억하게 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복해서 혹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객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려운 대화나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음을 간파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고객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도록 하여 핵심만 이야기하도록 도우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코칭해야 할 것이다.



이 책, 『코액티브 코칭』은 코칭의 기본 원칙과 코칭의 구성요소 그리고 코칭의 원칙과 그에 따른 실습을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과 같고, 백과사전 같은 기술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칭 기술과 사안 별로 실제적인 실습 예제를 제시함으로써 코칭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숙련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준 점이 매력적이었다.

\* 편집자주 \*

정헌철 목사는 서울 동대문구 동일교회 담임이며 코칭 목회를 하면서 2022년까지 3세대 코칭을 마치고 2023년에는 제4세대 코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 한국 부대표로 섬기며, 미남침례회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 학원 목회학 박사(D.Min.)를 졸업하였습니다.

## | 팀코칭 : 용인팀 코칭 컨퍼런스 이야기

“  
서로의 모습을 보며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



‘용인팀 목회자들이 지난 1월 12일(목) 서울 동대문구 동일침례교회(정헌철 목사)에서 모여 코칭 컨퍼런스를 가졌다. 용인팀은 지난 2018년 용인 요셉국제학교(윤광열 목사)에서 코칭세미나를 받고 한 팀이 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각자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칭 사역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이날 코칭 컨퍼런스에는 그린오션코칭연구소 석정문 대표, 이희금 사모, 동일침례교회 정헌철 목사, 동일침례교회 박종남, 최필자 권사, 동성교회 박준영 목사, 늘푸른교회 심용훈 목사, 하늘빛교회 김형태 목사, 인도네시아 서춘화 선교사, 유찬영 코치, 코칭연구소 코디 이동희 사모가 참석했다.

-편집자 주

팀코칭은 각자가 코칭으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팀으로 모여 서로의 상황을 알고 공유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다. 이날 모임에서 석정문 대표는 용인팀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사명과 핵심가치,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분명한 가치 위에 설 것을 강조했다.

석 대표는 사과나무 그림을 보여 주면서 “사명은 사과나무의 등치와도 같기에 든든히 서야한다. 사명은 삶과 사역을 변화와 혁신으로 인도한다. 뿌리는 핵심가치이며,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이런 뿌리와 등치에서 올라가면서 가지는 다양한 사역과 각종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명과 핵심가치는 ‘비전’을 이루어 간다. 비전은 미래에서 일어날 하나님 역사의 영적 실체의 작용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비전은 헬라어 ‘호르마’로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눈이다. 교회가 사명, 핵심가치, 비전을 가지면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으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실체의 작용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칭 사역을 나누었다.



# ARTICLE

윤광열 목사(요셉국제학교 교장)는 기독교 명문학교로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매 순간마다 코칭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며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했다. 용인에 있었던 학교 부지가 대기업에 매각되면서 학교를 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윤 목사는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 교사를 대할 때 석 목사님과 나의 모습 그대로를 생각하게 되었다. 석 목사님이 바라는 것 없이 사역하는 모습이 언제나 큰 도전이 되고, 코칭의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코칭 컨퍼런스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코칭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온 서춘화 선교사 부부가 참석했다. 서춘화 선교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어로 코칭 교재를 번역하기도 했다. 서 선교사는 “2003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도착해 20년이 지났는데, 코칭을 알게 되면서 ‘바로 이거다’하고 무릎을 쳤다”면서 “앞으로 10년 정도 더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데, 충성된 사람을 일대일코칭 해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코칭하는 것에 비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01

# COACHING

## | 3세대 피코치 최필자 권사, 올해는 코치로 활약 기대

“ 코칭으로  
암을 이겨냈어요 ”



동일침례교회 정현철 목사(1세대), 최필자(피코치, 3세대), 박종남(코치, 2세대)

동일침례교회에서 지난 1월 12일 진행된 용인 팀 코칭컨퍼런스에서는 2세대 박종남 권사(65)와 3세대 최필자 권사(71)가 사례발표자로 나와 코칭의 강력한 힘을 드러냈다. 최필자 권사는 암 투병 중에도 코칭을 받으며 111.7% 성취율을 달성한 공로를 인

정받아, 이날 GO코칭연 구소가 수여하는 ‘2022 최고 건강한 성도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0년 정현철 담임목사로 부터 코칭을 받아 코치로 세워진 박종남 권사는 2022년 최필자 권사를 피코치로 만나 코칭을 시작했다. 최필자 권사는 코칭을 시작하려

던 차에 암 선고를 받았다. 박종남 권사는 암 진단을 받은 최 권사가 부담없이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그런데 오히려 최 권사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열심을 냈다. 최필자 권사는 “코칭에 집중했기에 암에 지

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사례 발표의 내용을 전문 그대로 정리하여 신는다. 사례 발표는 정현철 목사의 질문과 박종남, 최필자 권사의 답으로 진행됐다.

- 편집자 주



정헌철(이하 정 목사) : 코칭이 신앙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박종남 권사(이하 박 권사) : 코칭을 하기 전에는 저도 머리 속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 왔지요. 그런데 목사님과 코칭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하니 열심히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피코치에게 1월 초에 계획을 세웠나 하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힘든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피코치에게 “다시 시작하면 2022년도처럼 2023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같이 세우자”고 했어요. “사단이 제일 성도들 넘어뜨리기 쉬운 게 미루는 것이라네. 미루는 것은 아무 죄의식도 없고 안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말해 주면서 독려했습니다. 저는 코칭을 만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필사하고 계획대로 하니 생활면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저희 친 언니도 얼마 전에 “박종남 권사야, 너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해. 하나님 은혜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올해로 코칭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코치하시는 것을 저도 느끼지만 주위 사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 목사 : 최필자 권사님은 항암 과정을 하면서 코칭을 받으셨지요.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최필자 권사(이하 최 권사) :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병에 집착을 안 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었고 ‘나는 암 환자다’ 이런 생각을 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코칭하면서 매일 쓰고 읽고 숙제처럼 하루라도 안하면 꺼려져서 집중했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했지만 성경을 일독한 적도 없고, 써 본 적도 없어요. 신앙 서적 한 권 읽어 본 적도 없었고요. 지난해만 책을 20권을 읽었어요. 처음에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과정에 항암을 받았는데, 병원 다녀오면 일주일엔 힘들었지만 다시 코칭을 하면서 힘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코칭을 하면서 제 자신의 생각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불평이 많았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는데 그것이 참 미웠어요. 그런데 코칭을 하면서는 내가 암 환자 인게 남편한테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사랑해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더니 얼마 전에는 “뭘, 내가 감사하지”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에게도 내가 낮아지고 손해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 목사 : 박종남 권사 코치가 영향을 줬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력인지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최 권사 : 우리 둘 다 남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잠든 시간이나, 밤에 대화를 하거나 했어요. 서로가 위로가 됐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료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하다 보니 기도 시간도 길어졌어요.

박 권사 : 코치와 피코치 관계는 신앙적 교감도 있어야 하겠지만 마음으로도 교감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최권사님하고는 코치와 피코치 이전에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제가 친언니처럼 여기고 있었고, 남편들이 술을 좋아해서 가끔씩 만나 기도 하는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래도 의지하는 관계였지만 코치와 피코치가 되면서 세상적인 근심, 걱정 외에 신앙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자 가정의 기도제목을 뽑아서 코팅해서 늘 나누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암 투병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몰라. 월-금만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주말까지도 빠지지 않고 목표를 실천하는 모습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코치와 피코치 관계가 서로 격려하면서, 성취율을 보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이 코칭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목사 : 코칭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권면의 말씀을 해 주세요.

박 권사 :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코칭을 할 때 프로그래밍 내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체크해서 프로그래밍 낸다는 게 어려우니까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들 합니다. 골치 아파서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제 계획을 보여주면서 “다 나랑 같이 하는 거니까 하자”고 합니다. 몇 달은 제가 피코치 성취율까지 다 내 주기도 했어요. 두려운 마음 갖고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도전해 보자고 격려합니다.

최 권사 : 이번에 제 피코치 김영숙 권사(74)도 복잡해서 “난 못해요 못해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나하고 만나면 하고 있는 거 적고, 할 거 적으라고 했어요. 해 보면 할 수 있으니까요. 다 알려주면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최필자 권사는 지난 1월 12일 용인팀 코칭컨퍼런스에서 GO코칭연구소에서 수여하는 '2022년 최고 건강한 성도 상'을 받았다.



정 목사 : 저는 두 분 권사님을 보면서 고령화 되는 어른들께도 코칭의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코칭을 하면 신앙생활 재미도 있고, 치매도 예방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목표를 갖고 실천하면, 제2, 제3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코칭은 ○○○다'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박 권사 : 코칭은 제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넘어지잖아요. 코칭을

통해 뿌리가 깊이 있게 단단해지면 곁에 있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권사 : 코칭은 제 인생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

어도 들을 때는 깨닫지만, 잊어버리곤 했는데 코칭을 계속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 2022년 목표와 실행전략 매월 결과보고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합 계	평 균
1월	10.6%	10.1%	12.4%	10.4%	43.5%	10.9%
2월	19.5%	19.7%	16.9%	19.6%	75.7%	18.9%
3월	29.6%	29.6%	27.8%	29.7%	116.7%	29.2%
4월	39.1%	38.6%	33%	37.7%	148.4	37.1
5월	50.1%	48.8%	38.9%	43.9%	181.7%	45.4%
6월	60.4%	58.5%	47.4%	49.9%	216.2%	54.1%
7월	71.3%	68.6%	55.8%	55.9%	243.2%	62.9%
8월	80.9%	78%	70.8%	61.2%	290.9%	72.7%
9월	90.4%	96.2%	79.4%	66.9%	332.9%	83.2%
10월	101%	106%	89.3%	72.7%	369%	92.3%
11월	110.9%	119.7%	97.5%	78.3%	406.4	101.6%
12월	124.4%	133.9%	104.9%	83.7%	446.9	111.7%

최필자 권사의 목표와 실행전략 성취율

## | 코칭으로 꽃 피우는 사람들

## “ Thank you, Coaching ”

새해를 맞아 국내 교회에서 코칭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3가지 질문에 답을 요청했습니다. 각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코칭을 적용해 가고 계시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코칭 가족 여러분들께 좋은 자극이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Q1.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볼 때 코칭 영역에서 감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개인적 그리고 사역의 영역에서 성장이 있던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Q2. 새해를 맞이하며 코칭과 관련된 새로운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Q3. 코칭을 하고 계신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늘빛교회 김형태 목사

Q1.

코칭을 하고 계신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영역 : 코칭을 자신을 계발하게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도 발견하게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자세를 발견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 잘 사용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니 감사합니다.

사역의 영역 :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미루거나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코칭을 통해 목표를 정하니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실천 계획을 실행해 가니 좋습니다.

Q2.

2세대 코칭 사역을 좀 더 확대해서 3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소교회이지만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Q3.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코칭을 통하여 사역과 삶의 변화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칭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를 늘 고민합니다. 그러다 작년에 양화진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에 방문했다가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기에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 INTERVIEW

“Oh, I pray that I may be faithful and not mind about the success.(오, 기도하오니, 나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 1890년 9월 14일 일기에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고자 늘 기도합니다.

Q1.

우리 교회는 조직 코칭과, 일대일 코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감사한 것은 코칭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책임감 자신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통해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겠다는 확신과 신앙의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들을 하고, 서로 교회의 목표를 세운 것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부서와 자신들과 목회자 간의 어렸을 것들을 알게 되고, 협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일대일로 코칭하기 위해 만나면서 어렵고, 갈등하는 부분을 저와 소통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문제가 되고 실망하던 것들이 해소되고 목회자인 저와 신뢰가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칭 사역을 하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칭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 큰 유익이었습니다.

Q2.

일대일 코칭이 우리 교회에 총 6분, 3세대까지 이어져 왔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4세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코칭을 받는 평신도들이 자신들과 같은 평신도들을 코칭 하면서, 각자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무조건 코치와 피 코치로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들도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코칭을 통해, 이분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갈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늘푸른교회 심용훈 목사

Q3.

우리 교회는 2019년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할 때부터 코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코칭을 받았던 분들이 왜 코칭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5년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밀고 나가던 차에, 만 3년째 접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코칭을 하는 분들 4명을 뽑아서 일대일 코칭을 시작하면서, 이분들 안에 코칭을 통해 자신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믿음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12월달만 되면 서로 힘들고 어렵다면서 새해부터는 자신을 빼달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 코칭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오히려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코칭 사역은 단기간 내에 교회를 변화시키고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목회자가 좀 오픈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수평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면 이 코칭 사역이 더욱 빛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고을제자교회 박정일 목사

Q1.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예배를 계획하였고, 마음 부분의 발전을 위하여는 독서, 몸의 부분을 위하여는 운동, 사회적 부분의 발전을 위하여는 가정예배와 군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말씀보내기 등 네 개의 부분에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영역에서는 전 교인이 네 개의 부분에서 월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개인예배, 독서, 운동, 가

정예배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매일 개인예배를 하시고 댓글을 달게 했는데, 스마트폰을 배우고 익히게 되시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시고, 독서를 하시는 과정에서 삶이 풍성해졌을 뿐 아니라 치매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반기결산을 해서 시상식을 하면서 참여자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Q2.

먼저는 코칭대상을 8명에서 11명이 더 참여하여 총 19명으로 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모든 교회의 모든 부서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코칭이 제자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자화 교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3.

코칭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나 사역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Q1.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적인 경험이 많으신 석정문 교수님이 일대일 코치로서 섬겨주신 만남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리더로서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코칭을 통해서 코치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석교수님이 저와의 코칭을 통해서 한 마디 한 마디 해주시는 조언 가운데에 학교 운영에 관한 많은 통찰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번 목실기를 통해서 제 사역을 이전과는 달리 목표와 실행전략을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은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사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력과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게 된 점은 코칭을 통해 성장했던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Q2.

새해에는 제가 훌륭한 코치로서 더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목회 및 경영 리더십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싶고, 새해에는 두 명의 피코치를 선정하여 코칭을 하고 싶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코칭 과정을 통해서 교사 코칭과 학생 코칭을 포함한 기독교 교육 코칭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Q3.

사실 사역으로 바쁜 과정에서 코칭까지 받고 또 피코치를 코칭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사분들에게 매우 피곤하고 부담이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코칭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Go 코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준 선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외에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 새해에도 코칭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시고, 주변에도 알리셔서 Go 코칭을 통해 개인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건강하게 부흥·성장·발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국제학교 윤광열 교장





**동일교회 정현철 목사**

Q1.

**개인적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상장해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영향력이 목회의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칭 4년째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실천하며 사역하는 기쁨을 늘 누릴 수 있음도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작년에 코칭에 관한 책을 12권 읽으면서 코칭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고, 교회 안의 코치들과 책과 그 안에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갈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코칭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생각

할 때 동역자인 코치들, 피코치들과 이러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역의 영역 :** 작년 10월 9, 16, 23일에 석정문 교수님과 제가 함께 동역하며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목장의 목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코칭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 교회에 홍보하며 전체 성도들에게 코칭을 더 잘 알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 코칭 교육을 받은 교사들과 목자들(목장마을 단위로 그룹을 만듦)이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월부터 각자 교회학교와 목장 마을의 영역에서 실행전략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감사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11개월 동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주심으로 연말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열매가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2.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교회 전체적으로 장년부에서는 목장마을과 목장 안에서, 교회학교에서는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조직 코칭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 코칭을 하는 분 중에 개인 코칭을 하도록 코치와 피코치를 1:1로 연결하여 코칭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2023년에 교회 전체의 신앙의 판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성장하여 믿음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로운 비전입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 노년부의 어르신들에게 코칭을 접목해서 그분들의 노년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2023년에 교회 전체의 신앙의 판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성장하여 믿음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로운 비전입니다.

Q3.

코칭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배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코칭을 목회에 접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코칭을 통해 교회를, 선교지의 사역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코칭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코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Q1.

개인적으로 감사한 영역은, 한 해 동안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향해 세운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영역에서는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 여러 사역들을 잘 성취했고 코칭 사역을 점진적으로 잘 진행해 온 것입니다. 또한 일대일팔로업코칭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령님의 교통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 가고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동성교회 박준영 목사**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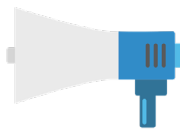
2023년에도 코칭세미나와 함께 새 피코치를 세워 코칭 4세대를 열고, 기존의 피코치들 또한 지속적으로 코칭 사역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계획이며 비전입니다. 자원하여 코칭사역팀장을 맡은 민향숙 권사가 지속적으로 코칭 사역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 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칭의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 지역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코칭세미나(자변, 세변)를 통해 부산 지역에 코칭사역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Q3.

코칭은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지만,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그 진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선한 영향력이 담임목회자로부터 흘러가고, 성도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이며, 성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사역이라 여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장해야 하는데, 자연적 성장의 능력이 일대일코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것이라 여깁니다. 더욱 기도하며 힘을 내,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마친 후 평가

(대상:GMS 지역 대표 선교사들)



지난 11월 30일(화), 12월 1일(목), 5일(화), 7일(목)까지 매 화요일과 목요일 4일간(매일 오후 4:00-7:00)에 걸쳐 진행된 온 라인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 후에 7명의 참석자들 중에서 6명이 보내 주신 평가지(evaluation paper)를 중심으로 평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1) 설문을 통한 평가, 다른 하나는 (2) 개인의 느낀 점에 대한 평가입니다.



### 1. 설문에 따른 평가

1) 첫째로 가장 높은 평가는 <질문 9>로써

“셀프 코칭의 중요성” 인식이 **4.4 point**

2) 둘째로 가장 높은 평가는 <질문 4>로써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3.83 point**

3) 셋째로 가장 높은 평가는 <질문 7>로써 10년 후(2030년)의

“청사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3.6 point**

4) 넷째로 가장 높은 평가는 <질문 5>

“목표 설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변화”로 **3.5 point**

5) 다섯째는 <질문 6>

“목표 성취를 위한 실행전략의 중요도”로서 **3.4 point**

6) 여섯째는 <질문 8>

“삶의 청사진 5가지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는 **3.0 point**

7) 일곱째 <질문 3>

“비전에 대한 열정”은 **1.68 point** 의 변화, <질문 2> “사명에 대한 인식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8) 한편 구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10으로, 모두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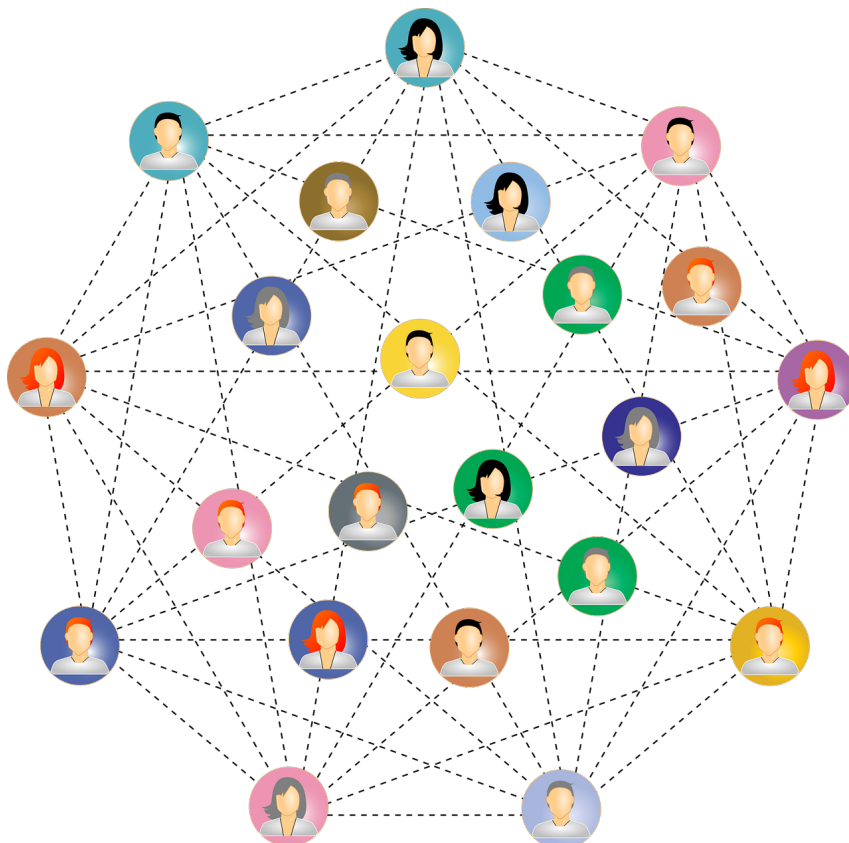
9) 가장 높은 평가는 <질문 10>로써

셀프 코칭을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싶음” **9.2 point (92% 만족)**



**아래는 전체를 정리한 차트**

이름	질문1	질문2	질문3	질문4	질문5	질문6	질문7	질문8	질문9	질문10
1.김O훈 (C국)	10-10 (0)	9-10 (+1)	8-8 (0)	7-8 (+1)	6-9 (+3)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맹O균 (미얀마)	10-10 (0)	8-9 (+1)	7-9 (+2)	6-10 (+4)	5-9 (+4)	5-9 (+4)	6-9 (+3)	6-9 (+3)	5-9 (+4)	6-9 (+3)
3.윤O환 (기르키스탄)	10-10 (0)	8-9 (+1)	7-9 (+2)	6-9 (+3)	8-9 (+1)	8-9 (+1)	7-9 (+2)	7-9 (+2)	6-8 (+2)	6-8 (+2)
4.이O배 (폴란드)	5-8	8-10 (+2)	7-10 (+3)	5-9 (+4)	3-9 (+6)	3-9 (+6)	3-9 (+6)	7-10 (+3)	2-9 (+7)	9
5.허O셉 (T국)	10-10 (0)	8-9 (+1)	07-08 (+1)	7-10 (+3)	5-9 (+4)	6-9 (+3)	6-9 (+3)	6-9 (+3)	5-10 (+5)	7-10 (+3)
6.안O호 (말리)	10-10 (0)	9-9 (0)	7-9 (+2)	6-9 (+3)	6-9 (+3)	6-9 (+3)	6-9 (+4)	5-9 (+4)	6-10 (+4)	10
<b>합계</b>	<b>0</b>	<b>6</b>	<b>10</b>	<b>23</b>	<b>21</b>	<b>17</b>	<b>18</b>	<b>15</b>	<b>22</b>	<b>46</b>
<b>평균</b>		<b>1.00</b>	<b>1.66</b>	<b>3.83</b>	<b>3.5</b>	<b>3.4</b>	<b>3.6</b>	<b>3.0</b>	<b>4.4</b>	<b>9.2</b>





## 2. 느낀 소감에 대한 평가

### 1) 좋았던 점은?

- (1) 소명과 사명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더욱 거룩을 추구하게 됨
- (2) 앞으로 남은 삶의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인식케 됨
- (3) 코치와 피코치의 연계의 중요성으로 서로를 세우게 되는 원리를 다시 인식케 됨
- (4) 실적인 삶을 나누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 (아프리카, 말리의 안O호 선교사)

- (5) 삶의 청사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
- (6) 핵심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미얀마의 맹O균 선교사)

- (7) 다시 한번 코칭의 중요성 인식할 수 있어서 좋았음
- (8) 자신의 사명, 비전, 핵심가치, 목표와 실행전략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음

#### (기르키스탄의 윤O환 선교사)

- (9) 나에게 코치가 생겨 좋은 가르침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점
- (10) 선교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심
- (11) 무기력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이 된 점
- (12)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돌아 보고 점검하게 된 점
- (13) 코칭(코치와 피코치)이 사역에 필요한 점을 깨닫게 됨

#### (서유럽, 폴란드의 이O배 선교사)

- (14) 계획을 세우는 일과 자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 깨달음  
특히 사명, 비전, 가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변화됨
- (15) 목표와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좋았음

#### (T국, 허O셉 선교사)



## 2. 느낀 소감에 대한 평가

### 2) 아쉬웠던 점은?

(1) 일대일 양육에 있어서 코치나 피코치가 소명과 사명 그리고 비전을 품고 목표를 향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약간 미흡하게 느껴 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2) 일대일 제자 훈련- 멘토링- 코칭의 차이점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의 부족함

(아프리카 말리, 안O호 선교사)

(3) 미얀마에서 전기가 나가는 시간에 강의가 진행되어서 더운 날씨 관계로 강의에 집중하기 힘들었음

(4) 줌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터넷이 원활하지 못해 강의가 끊겨서 어려움이 있었음

(미얀마, 맹O균 선교사)

(5) 이론 보다 실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6) 인터넷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

(기르키스탄, 윤O환 선교사)

(7) 코칭 강의 듣는 시간과 난민 사역 시간이 겹쳐 강의 집중이 될 수 없었던 점

(8) 강의를 너무 오랜만에 듣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음

(9) 강의 후 과제물 제출에 신경이 쓰이는 점

(10) 전략을 세운 후 실행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점

(11) 강의와 과제 시역 시간 조정이 어려움

(서유럽의 폴란드, 이O배 선교사)

(12) 시차로 인한 시간 조정과 인터넷 사정이 어려운 점, 지역적 특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아쉬웠음

(13) 코칭 수업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한 아쉬움

(T국, 허O셉 선교사)





서울 / 경기 코칭세미나 설명회

# COACHING SEMINAR

INFORM

제자훈련을 넘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줄 코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강사 : 석정문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목회코칭 특훈교수  
\*그린오션코칭연구소 대표



일시 : 2023. 4. 10. 월 오전 10:00- 12:00

장소 : 추후안내



회비 : 사전등록 1만원(하나은행 634-910050-22105 그린오션코칭연구소)  
현장등록 2만원



등록 : 입금 후 문자(010-3123-0423)로 성함/교회/직책



서울/경기 지역 코칭세미나 일정

2023. 5. 8(월), 9(화), 15(월), 16(화) (4일간), 장소: 추후 안내  
이 과정은 세미나 수료 후 1년간 코치와 일대일코칭이 이루어집니다.



설명회 참석자 특전

정규 코칭세미나 등록 시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010-3124-0423

문의 : 이동희 사모 (그린오션코칭연구소 코디네이터)